

# 사랑의 감성과 거룩한 상상력으로 역사를 움직이자

추태화 (실행위원, 안양대학교 기독교문화학과 교수)

## I. 미디어 만능시대

우리는 20세기를 지나면서 엄청난 기술의 발전을 목격했다. 기술은 생활의 편리에 기여하는 정도를 넘어 인간과 신의 존재를 규명하려는 자리에까지 올라왔다. 버튼 하나면 모든 것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으니 과학이 도도해질 만도 하리라. 이로써 '인간'을 정의함에 있어 '호모 테크니쿠스(homo technicus)'라는 용어가 추가되었다. 더구나 정보기술까지 가세하여 미디어 만능시대로 접어들었으니 그 순기능과 역기능을 추론하기에는 머리가 빠근할 지경이다.

미디어는 인간의 실존 조건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 사회인을 평가하는 관계지수(NQ, Network Quotient), 사회지수(SQ, Social Quotient)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는데, 미디어와 관련지어 이해하자면 얼마나 사회와 긴밀하고 적절하게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요점이다. 외톨이, 아웃사이더는 사회적으로 크게 환영받지 못한다는 분위기가 미디어 만능시대에 사회인을 측정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미디어 시대는 기호의 정글, 기호의 홍수를 가져왔다. 거대자본으로 무장한 미디어 콘체인(법률상으로 독립되어 있으나 경영상 실질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기업결합)에서부터 개인의 사소한 일상이 소재가 되는 팟캐스트

트에 이르기까지, 네트워크는 무공무진하고 그 안에서 생성되는 데이터 역시 광대하다. 홍수에 마실 물이 부족한 것처럼 그토록 많은 정보 중 과연 인간에게 유익한 정보는 얼마나 될까? 이기주의에 물든 정보는 또 다른 먹이를 찾아 미디어 네트워크를 방황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신화창조는 순수성을 잃게 된다. 현대 사회에서 신화는 만들어지고 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된 신화가 아니라 조작되고 가공된 신화가 등장한다. 이른바 웰메이드(wellmade) 신화이다. 주식, 부동산, 다이어트 등 자본주의 시대에 창작된 신화가 원전을 꿰차고 들어앉은 형상이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우리가 가시화한 것이다. 이런 시대일수록 '짜라시'가 판치게 된다. 거짓 소문이 세상을 움직이고 거짓이 진리를 성 밖으로 내쫓는 허위의 시대가 된 것이다. 성경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 성 밖으로 내쫓김을 당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다(눅 4:29).

미디어 만능시대에 경악하게 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모든 것을 관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이른바 판옵티쿰(Pan Opticum), "전지전능하진 CCTV"가 속속들이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이다. 권력자들은 모든 것을 감시할 수 있고, 원하는 대로 정보를 조작하는 대중조작(Manipulation)을 할 수 있다. 반면 시민들은 항상 감시받고 통제당한다는 불안에 시달린다. 통치자들은 은밀히 시민들을 감시하면서 교묘하게 반(半)히스테리적인 증상을 조장하려 한다. 그래야 보다 통치가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 II. 도구적 이성의 중말

21세기의 미디어 왜곡 현상은 이미 1930년대에 경고된 바 있다. 독일 나치 권력이 등장하던 시대에 프랑크푸르트 학파로 모인 일군의 학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헤겔 좌파 철학, 시민적 비판의식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다. 호르크하이머, 아도르노, 마르크제, 벤야민 등은 미디어와 대중문화의 은밀하고 위대한 결합을 분석, 계몽주의적 이성(理性)이 한낱 욕망의 도구로 전락하는 비극을 간파하였다. 그로부터 80여 년이 지난 오

늘도 현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듯하다. 인간의 가능성으로 추양받던 이성은 늙고 기운이 빠져 권태와 무기력에 빠져버렸다. 인간을 계몽·발전시킨 원동력이 라 여겨지던 이성이 고령화 시대의 뒤안길로 사라져가고 있다. 대중문화는 창조성을 잃어버리고 복제에 복제를 거듭하여 문화적 가치를 상실한 소비재로 전락했다. 결국 대중문화와 그것의 종노릇하는 미디어로 인해 시대정신은 마비되고 시민적 비판의식은 점점 녹슬어 그 기능을 잃어버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미디어 통제 권력이 어떻게 사회를 비인간적으로 몰아가는지를 소설가 오웰(G. Orwell)은 극명하게 보여준다. <1984년>은 그런 의미에서 인류를 향한 경고이다. 어느 날 주인공은 자신의 사생활이 낱낱이 감시당하고 있다고 느낀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다. 개인의 특성과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 "빅 브라더"는 주인공을 자신의 왕국에서 제거해 버린다. 주인공은 현대인들이 느끼는 소외를 미리 겪었던 것이다. 21세기의 시민들은 사회 여러 곳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참여대열에서 한발자국 물러서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이윤배반적인 미디어의 활약을 박수로 환영할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

도구화된 이성은 현 시대에 이미 작동하기 시작했다. 이기적 인간이 만들어낸 이기적 미디어는 드디어 사회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어쩌면 슈퍼컴퓨터에 의해 사회나 국가가 통제되는 시대가 머지않은 듯하다. (최근 일어난 금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도구적 이성이 가져올 대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 정도면 종말적 사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영화 <2012>는 세계의 종말이 물의 심판으로 현실화 될 것을, <폼페이>는 베수비오 화산 폭발, 즉 불의 심판을 재구성하여 보여주고 있다. 인류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진, 해일, 원전 폭발 등 대량 인명살상 현장을 목격했다. 종말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이다. 이렇게 이성이 무기력해 보이는 환경과 문화 속에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회복의 근거는 무엇일까.





### III. 감성과 상상력을 다시 돌아보라

그동안 전통으로 받아들여지던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오늘날의 리더십 현장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군주와 가신 간의 상명하달식 리더십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제는 상생의 리더십, 협상의 리더십 등이 필요하며, 감성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등이 등장하였다. 이성과 감성이 인간에게서 분리할 수 없는 속성이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감성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흥대를 받아왔는가. 그동안 감성은 이성보다 열등한 속성으로 치부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연구자들은 감성(Emotion)이야말로 인간의 삶에서 간과할 수 없는 요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중 골먼(D. Goleman)은 감성지수(EQ, Emotional Quotient)를 정립한 학자로, 감성에 지능적 역할과 측정, 적용을 정리하여 <감성지능 Emotional Intelligence>이란 책을 펴냈다.

감성은 개인의 성격을 넘어 역사의 흐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무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분노라는 감정은 사람들이 권력의 억압에 벌벌 떨고 있을 때, 혁명의 불길을 सूत지게 할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이집트, 리비아 등지에서 일어났던 혁명을 보면 알 수 있다.) 감정 이입은 또 얼마나 힘이 있는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비폭력 저항운동과 연설에 감동 받은 이들이 함께했던 행진은 감성의 승리를 증언해준다.) 감성은 인간에 내재한 다양한 감정이 적절한 시기에 표출될 때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촉매가 된다. 최근 개봉한 애니메이션 <겨울 왕국>은 감성의 역할을 잘 보여준다. 그중에서도 사랑은 이론이 아니라 감성이라는 것을, 이성과 논리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실천과 행동이 중요



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른바 사랑 지수(LQ, Love Quotient)가 중요하다. 영화는 '진정한 사랑이 이긴다.'는 주제를 영상화하고 있다. 왕국을 차지하려는 이웃나라 왕자가 엘사를 살해하려는 장면에서, 안나는 온몸을 던진다. 얼음으로 변해가면서도 언니 엘사를 위해 몸을 던진 것이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한 사랑이 없다."라는 말씀처럼 동생이 보인 진정한 사랑으로 인해 언니가 살게 되고, 해피엔딩을 맞게 된다.

그러나 헐리우드 식 사랑관은 한계가 있다. 인간적 사랑은 그 어떤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떤 사랑이어야 하는가? 신적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사랑으로 연결되어야 사랑은 완성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 IV. 사랑의 감성과 거룩한 상상력으로 역사를 움직이자

테일러(M. Taylor)는 대중문화 현상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대중문화는 구원을 기다리는 기호로 가득 차 있다." 대중문화의 역기능적 현상을 관찰하면 반인간적, 비인간적인 모습이 종종 눈에 띈다. 미디어의 폭력성, 선정성 등이 무분별하게 드러난다. 대중문화를 형성해가는 문화적 상상력은 이성의 도구화와 마찬가지로 도구로 변질되고 있다. 즉, 도구화된 상상력이다. 문화콘텐츠를 만들어내기 위해 작

동하는 기능과 과정으로의 상상력인 것이다. 비좁고 뻣뻣한 담장에 갇혀 계란을 생산해내는 닭처럼 상상력도 혹사당하고 있다. 상상력(Imagination)을 죄의 굴레에서 해방시켜야 되는 것은 물론 세례를 받아 거룩해지도록 해야 한다. 세례받은 상상력(Baptized Imagination), 거룩한 상상력(Holy Imagination)은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원동력이 된다. 이제 감성과 상상력을 기독교 세계관 운동, 기독교 문화 창조와 확산에 적극 활용해야 할 시기이다.

예를 들자면 상상력은 사회 문제와 관련하여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아동 성폭력은 심각한 사회문제임에도 시민들은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 망각의 시간 속으로 묻혀 버렸던 사건은 영화 <도가니>를 통해 시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법정정예까지 영향력을 끼쳤다. 상상력을 통한 공감대 형성(Sympathy)과 감정이입(Empathy)이 국회를 움직이게 한 것이다.

여기서 생각을 좀 더 확장해 보자. 상상력은 국제 정치와도 무관하지 않다. 최근 동아시아 국제 관계가 심상치 않다. 한중일, 삼국 간에 국방을 앞세운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다. '한 발자국만 더 움직여 보라.' 하는 심정으로 가공할 스텔스기를 띄우고, 온갖 미사일과 공격무기를 장착한 항공모함을 가동, 잠수함을 출격시킬 태세이다.

이러한 대치현상은 이성이 앞섰기 때문이다. 외교문제를 이성으로만 설득시키려다 보니, 유엔 위원회나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에 이른 것이다. 증폭되는 갈등을 제어하지 못하는 이성의 정치학인 셈이다. 이기적 이성으로는 상생도, 평화공존도 있을 수 없다. 특히 우리는 일본과의 외교문제에 위안부 사과 문제, 독도 문제, 신사참배에까지 신경을 곤두세우며 대응하고 있다. 중국까지 가세하여 잘못을 지적하고 반성을 촉구해도 마이동풍이다. 감정의 끈이 끊어지고 있다. (필자는 개인

적으로 이런 상상을 해본다. '한중일, 세 나라가 유로존처럼 국경을 개방하고, 화폐를 단일화하고, 주주자유, 시장개방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을까?')

기독교인들은 "변혁"(Transformation)이라는 슬로건으로 사회 변화를 이뤄보려고 애써왔다. 그러나 다양한 교단으로 분리된 개신교회의 부정적 모습이 미디어에 부각되고 비판받게 되면서 신뢰도에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제 무엇으로 우리의 진심을 보여줄 것인가. 교리와 말로써는 더 이상 세상이 듣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지금,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 사랑의 감성과 거룩한 상상력을 대안으로 제시해 본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짧은 성구 안에 핵심이 들어 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감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장대한 비전을 세우는 거룩한 상상력으로 세상을 끌어안는다. 세상은 다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듣게 될 것이다. 사랑의 감성으로 회복하게 되고, 거룩한 상상력으로 미래를 설계하게 될 것이다.

쉐퍼(F. Schaeffer) 박사는 이렇게 주장했다. "이제는 문화변증론으로 훈련된 청년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야 할 때이다." 그가 의미하는 문화변증론(Cultural Apologetics)이란 교리와 입으로만 표현되는 기독교가 아니라, 삶의 실제 부분으로 증거되는 복음의 능력이다. 다시 말해 삶과 문화로 증거되는 복음이야말로 감동과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다.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문화, 기독교 미디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방안을 제시하는 귀중한 어록이라 할 수 있다.



**추태화** 안양대학교 신학대학 기독교문화학과 교수, 단국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한 뒤 독일 뮌헨대학교에서 독일 문예학, 기독교문학, 철학, 사회학(M.A.)을, 그리고 아우구스부르크대학교에서 독일 문예학과 신학을 공부했다(DR. PHIL.). 문학과 문화 비평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일생의 사명으로 삼고 우리 사회가 건강한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맑고 풍요로워지기를 꿈꾸는 기독교문화운동가이다.(antelao@hanmail.net)